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작성일 : 2012년 1월29일 새벽1시5분

작성자 : 장정희

[다리끌기도굴서 선생님처럼 승리자가 되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믿음을 가
지고 누가복음 23장과 24장을 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5절-46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
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성소는 구시대 구약 주관권을 말한다.

종의 주관권 구약이

나 예수의 십자가 구원으로

나를 믿는 사람들과

나 예수를 믿고 앞으로 살아날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 구원을 받음으로

구약의 무덤을 폐하고 신약으로 휴거됨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로 표현하였
다.

이는 나 예수의 육 된 선생을 통해 시작된

성약 재림역사 때도 마찬가지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 역사가

이 시대도 일어났느니라.

이는 시대의 휴거와 거둢남을 의미한다.

46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한 마지막 나의 말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였으
니

이 말은 나 예수를 믿는

모든 영혼들의 부활을 의미한다.

한 사람의 피가 모두의 허물을 씻기듯

나 예수의 육의 희생과 대속이

내 영의 부활을 이루었고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나와 한 몸인 고로

그들의 영들이 나의 부활과 함께

같이 부활됨을 말하노라.

그리하여 부활의 또 다른 의미는 승리이다.

부활되었다는 것은 승리하였다는 말이다.

이 승리는 구원의 의미로

영이 지옥이 아니라

영의 구원인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의미이니

이것이 진정한 승리요 부활이요 구원인 것이다.

이 승리를 위하여

내 육은 사탄에 내어 준 바 되었고

내 영은 잠시 삼일 동안 음부에 가 있다가

삼 일 만에 다시 부활되었노라.

내 영이 육의 죽음 후

고난의 길을 잠시 가게 된 경위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내 육의 창조 법칙을

내 영혼도 따른 것으로

삼 일 동안 음부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멸망 받아

영옥에 갇힌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삼일 동안 완전한 영의 구원인 그들의 부활을 위해

내 영을 희생하였노라.

삼 일의 의미는

내 영의 회복을 위한 고난 기간이므로

내 영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부활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았노라.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
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내 영의 모습이었노라.

그리하여 나 예수가 하나님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말하였노라.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왜 많은 자들이 멸망당한 줄 아느냐.

이 시대와 같이 그때도 악평자들이 있었다.

노아를 악평하고 비방하고

자기가 믿는 신이 참신이라며

백성들을 방주에 타지 못하도록

미혹한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지금 이 시대 섭리와 선생을 악평하는

악평자와 같다.

내가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영들이

바로 이 악평자의 말을 듣고 방주를 타지 않아

심판 받아 멸망한 영들이니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그들 중 내 말을 믿는 자만

그 영옥에서 빠져 나왔고

더러는 내 말을 여전히 믿지 않아

그곳에 영원히 갇혀 버렸다.

이와 같이 2천 년 전과 이 시대도

악평자들이 내 영혼과도 같은

내 사랑하는 신부들의 영혼을 실족케 하니

그로 인해 나의 십자가 짐이 더욱더 무거워지는구나.

이를 아는 시대 의인 내 육인 선생이

내 십자가 짐을 지고 가니

이는 나에 대한 사랑 때문이고

너희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내가 사랑으로 인해 죽어 준 것처럼

그도 사랑으로 인해

이 시대 십자가를 지고 그 곳에 있다.

사랑은 시대 재림 복음이니

그는 이 재림 복음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다.

2천 년 전 나의 말이

그 시대 종교지도자들과 달라 이단 취급 받았듯

선생 또한 선생이 전하는 복음이

기성의 복음과 달라

그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 마라.

내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탄에게 내어 준 것처럼

선생의 육이 그곳에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활시켰듯

선생 또한 나의 노정을 걸음으로

누가복음 24장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 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처럼

그가 제 삼 일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리라. 승리하리라.

내 영이 삼 일 동안 영옥에 갇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선생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는 그의 행적이 나의 행적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때 며칠 전 꿈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께서 꿈에 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살인범이 살인범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6장을 펴라.

다니엘에 허물 없음을 본

그 시대 고관들이 시기질투하여

삼십 일 동안 왕 외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는다는 금령을 세워

다니엘로 하여금 이 금령을 어기게 하여

그를 사자 굴에 갇히게 하였다. 그러나

다니엘 6장 23절-24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자 굴에서 살아남고

왕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24절처럼 처리했듯

이 시대 나의 육인 선생도 다니엘처럼 살아남고

선생을 참소한 자들도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처럼 될 것이다.

선생은 다니엘이 사자 굴에 갇혔듯

영 사탄과 인 사탄 악평자들로부터 해를 입었으나

삼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사랑으로

그의 영 혼 육 마음은 하나도 상함이 없다.

또한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한 왕처럼

선생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고

선생에게 해악을 끼친

인 사탄과 영 사탄을 멸하리라.

사자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의 뼈까지도 부서뜨렸듯이

그들은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며

사탄들 또한 영원한 심판을 당하리라.

그리하여 다니엘 6장 25절처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시대 만민이 다니엘의 행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듯

하나님께서 선생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시대가 알게 할 것이다.

선생을 다니엘 6장 26절-27절처럼 되게 할 것이다.

다니엘 6장 26절-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
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지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
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
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
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
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다.

민족의 죄와 자기를 참소한 자들의 죄까지 회개하였
으니

이는 선생이 지금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

[그럼 주님, 삼 일에 살아나리라 하셨는데
삼 일이 무엇인가요?]

3은 하늘 수고 4는 땅 수니

삼 일에 살아나리란 말은

하늘의 뜻을 이루는 하늘 수를 채운 후

선생이 살아난다는 말이다.

나 예수가 영육에 갇혀

삼 일만에 내 영이 부활했듯

또한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그의 육이 부활했듯

선생의 육도 부활할 것이니

이는 선생이 십자가를 벗어 버림을 의미하노라.

그러나 이 하늘 수의 삼일의 의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느니라.

선생이 나오는 시기와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선생이 그곳에서 삼 일 만에 다시 살아나듯

너희도 준비하여라.

재림 준비가 내 육과 영을 맞을 준비이지 않느냐.

그리하여 선생 살아 있을 때

육 휴거와 영 휴거가 다 일어난다 하지 않았느냐.

다니엘 7장 25절을 보라.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
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 두 때 반 때가 삼일이니라.

이는 숫자 3이 아니라 하늘 고역 기간이다.

이 하늘 고역 기간이

나 예수가 영육에 있었던 삼일이다.

그리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면

선생은 살아나리라.

이 삼 일은 나의 영 휴거 준비 기간이다.

나의 영 휴거 준비 기간인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

영 휴거가 일어나니

너희는 선생과 함께 한 때 두 때 반 때를 기다려라.

오직 기도와 실천인 사랑으로

나 예수에게 붙고 선생에게 붙어라.

선생은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나 예수가 삼 일 만에 영으로 강림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

역사를 펴고 다시 본 대로 갓듯이

선생도 삼 일 한 때 두 때 반 때 만에 살아나

너희들에게 보이겠으며 부활 역사를 펴고

2023년에 선생의 공생애 사명을 마칠 것이다.

핵은 이미 나 예수는 재림하여

선생 통해 육 휴거 역사를 펴으며

육 휴거 역사 기간에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간다는 것이니
너희는 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선생과 함께 이겨 내라.
반드시 너희도 삼 일 만에 선생과 함께 살어나
나의 영 휴거를 맞이할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여 나 예수가 재림의 비밀을 말하였다.
안녕.